

# 숨이 턱턱...생활속 미세먼지부터 줄입시다

차량 공회전 단속 전혀 없고  
제한지역도 119곳 한정  
차량 2부제·도로 물 청소 등  
광주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속  
화목보일러는 실태 파악도 안해  
실질적인 저감대책 마련 절실

#1.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46)씨는 아침 출근시간만 되면 지하주차장에서 일어선 분석 공회전을 하는 차량들 때문에 숨이 턱 막힌다. 김씨는 "가뜩이나 미세먼지도 기승인데, 좁은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2대만 공회전을 해도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북구 매곡동의 B아파트 출구 앞은 오전 8시계면 스쿨버스와 자가용 등 각종 등교 및 출근 차량이 시동을 걸고 대기하는 바람에 저층 거주민은 창문조차 열 수가 없다.

#2.미세먼지가 광주 하늘을 뒤덮은 지난 6일 광주시 북구 석곡·망월동 등 무등산 자락 주민들은 '미니 화력발전소'로 불리는 화목보일러에서 뿜어내는 연기까지 겹쳐 창문조차 열지 못했다. 미세먼지가 주춤한 날도 저녁 무렵이면, 수십 가구의 화목보일러에서 뿜어대는 연기 때문에 마을 자체가 뿌연게 보일 정도라는 게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석곡동의 한 주민은 "무등산 자락에 있는 등촌, 분도마을은 예부터 공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 시도 때도 없이 뿜어대는 화목보일러 연기와 악취 때문에 마당에 빨래조차 널기 힘들다"며 "북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발령되는 날만이라도 운영을 자체로 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와 국내의



7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서석동 동구청 주차장 입구에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하나로 차량 2부제를 안내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지난 4일부터 발령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해제됐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오염물질이 더해져 최악의 대기오염이 발생하면서 생활 속 미세먼지라도 저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들은 기존 규정을 내세워 대책이 없다는 공색한 변명만 반복해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7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광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오전동 93 $\mu\text{g}/\text{m}^3$ , 주일동 87 $\mu\text{g}/\text{m}^3$ , 농성동 83 $\mu\text{g}/\text{m}^3$ , 건국동·서석동 82 $\mu\text{g}/\text{m}^3$  등을 기록했다.

광주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초미세먼지(PM2.5)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7일 오후 1시까지 시간평균농도가 '나쁨(36~75 $\mu\text{g}/\text{m}^3$ )' 수준인 61 $\mu\text{g}/\text{m}^3$  이상을 유지하면

서 특보가 163시간째 이어졌다.

광주시는 지난 4일부터 사흘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차량 2부제 시행 ▲도로 미세먼지 물 청소 ▲차량 공회전 단속 강화 등을 시행중이라고 밝혔지만, 미세먼지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는 공회전 단속은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시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공회전 단속적발(과태료 5만원)건수는 0건이다. 이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계도 위주로만 단속하는데, 광주시 대기환경보전 조례상에 지정된 단속지역도 터미널·차고지·공영주차장 등 119곳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일상생활 발생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사실상 전무하다. 광주시

와 5개 자치구는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화목보일러 사용가구에 대한 관리·감독은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무등산 자락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수십여 세대에서 검은 그을음 등을 동반한 연기와 악취를 종종 뿜어내고 있다.

주민들은 "폐 목재 등을 사용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목보일러 등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들이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광주시 등 지자체는 정부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배출원까지 꼼꼼히 챙겨 생활 속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조합장 후보자에 음식접대 받은 조합원들 13명에 2137만원 '과태료 폭탄'

전남도선관위 전국 첫 부과

조합장 후보자에게 음식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로부터 식사와 양주를 받은 조합원 13명에게 모두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한 지역 모임행사에 참석해 후보자와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277만원 상당의 식사와 양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음식물을 받은 조합원 13명에 총 2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명당 평균 164만원 꼴로 과태료가 부과된 셈이다. 선관위는 또 모임을 주관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거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새학기 3월 초등생 교통사고 '주의'

2월보다 50% 이상 증가

스쿨존 사고도 줄지 않아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은 2월보다 초등학생 교통사고가 50%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상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저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3~2017년 초등학생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1만5540건이다.

월별 사상자는 1월 825명, 2월 897명에서 3월 1384명으로 전월 대비 55% 증가했고 4월 1519명, 5월 1841명으로 개월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시간대별로는 하교 시간인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9859명이 집중됐다. 1학년 학생이 3550

명으로 가장 많은 22.3%를 차지하는 등 저학년 피해자가 많았다.

사고 원인으로선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준비 부족이 55%로 나타나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학교 등 어린이 시설 주변의 빨간색 도로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기간의 초등학생 교통사고는 꾸준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2013년 308건, 2014년 377건, 2015년 381건, 2016년 345건, 2017년 333건 등으로 줄어들지 않았다.

또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상자의 11.2%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한 데 비해 이곳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전체의 23%에 달해 스쿨존 사고의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버스승강장에 공기안전 쉼터·취약계층 마스크 120만개 지급

광주시 미세먼지 긴급 대책회의  
교육청 공기정화장치 4335대 설치

광주시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버스승강장에 공기안전 쉼터를 조성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7일 시청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광주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

이 회의에는 시교육청, 시의회, 자치구, 영산강유역환경청, 경찰청, 국제기후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광주 지역 관계기

관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3월 중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120만개를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20개소 10억원), 비산먼지 억제제 살포 지원(20개소 1억원), 광천터미널에 클린로드(고정 살수식)·쿨링포그(안개 분사식) 설치, 버스승강장에 공기안전 쉼터를

조성한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농도가 '경보' 수준인 경우에는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확대(2100대~5000대), 어린이집·학교에 간이측정기 설치, 살수차 신규 보급(6대 14억원), 전기차 보급, 3000만그루 나무 심기 등 대책을 내놔다.

광주시교육청도 유치원, 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4335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회계 부정' 남부대 압수수색

경찰이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 부정이 드러난 남부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남부대 총무처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학교 운영 및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교비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예산 전용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학교 내 건물공사와 관련해 회계부정 등이 있었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초 남부대학교를 감사하며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계상 문제점이 발견돼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경찰청장이 뭐길래? ...광주 방문 '대통령급 철통 보안'

상대방

○-광주경찰청이 지난 7월 취임 후 첫 광주 방문에 나선 영암출신 민갑룡 경찰청장의 일정을 대통령급(?) 철통 보안수준으로 유지해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의의 아니냐'는 지적.

○-7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민갑룡 청장은 8일 오전 8시 35분께 헬기를 타고 광주공항에 도착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기획단 사무실에서 간담회 및 기념촬영을 한 뒤, 북부경찰서를 찾아 행사특진(경감) 임용 기념촬영에 이어 백범기념관에서 이장정 기념촬영을 할 예정이라는 것.

○-이후 민 청장은 오전 11시 10분께

광주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경북 구미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민 청장의 광주 방문을 비밀로 해달라고 해 일정을 숨겨왔는데, 방문 하루전 외부(언론 등)로 노출이 됐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

○-이를 놓고 경찰 안팎에서는 "(광주경찰청)간부들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라고 내부 단속을 강화해 무슨 중요한 일정이 있는 줄 알았다"며 "정작 일정을 보니 경찰업무와 관련된 것은 특진임용장을 주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기관 방문 기념촬영이 고작이던 데 보안을 지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가우뚱.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